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2. 23.(목) 11:00 < 2.24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2. 23.(목)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박덕열 (044-203-5230)
		담당자	사무관 조현진 (044-203-5234)

동절기 액화석유가스(LPG) 가격 점검회의 개최

- 액화석유가스(LPG) 가격 동향 점검, 난방비 가격안정화 협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는 **최근 2월 LPG 국제가격 상승**에 따른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, **국내 LPG 가격안정화**와 최근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경감대책*에 대한 **LPG 업계의 협조를 당부**하고자 **LPG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**를 개최하였다.

* 이번 동절기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.지역난방 수준(59.2만원)으로 지원 확대 (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, 2.15일)

○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.23.(목) 오후 **수입사(SK가스, E1), 정유4사, 한국LPG산업협회,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, 한국LPG배관망사업단, 에너지경제연구원** 등 관련 LPG업계와 회의를 개최하고,

- 최근 LPG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LPG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, LPG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**가격 안정화**를 위한 **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**하였다.

【 동절기 LPG 가격 점검회의 개요 】

◇ **일시/장소** : '23.2.23.(목) 15시 30분 / 서울 단암빌딩 대회의실

◇ **참석자** : (정부)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, 가스산업과장 등

(업계) SK가스, E1, SK에너지, GS칼텍스, S-Oil, 현대오일뱅크, 한국LPG산업협회,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, 한국LPG배관망사업단

(연구기관) 에너지경제연구원

◇ **논의내용** : LPG 가격 동향 점검, 동절기 난방비 가격안정화 협의

□ 그간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**LPG 수입사**(SK가스, E1)는 **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LPG 도매가격을 동결 또는 지속 인하**한 바 있다.

* LPG 가격은 '01년도 가격자유화 이후 국내 LPG 업계가 국제가격 및 환율 등을 반영하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

○ 다만, **최근 동절기 이상 한파** 등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확대 등 영향으로, 3월 국내 도매가격 반영되는 **전월(2월) 국제가격이 약 34%**(+200$/톤, 프로판) **상승**함에 따라 LPG 수입사의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.

- (국제가격) ❶ 프로판($/톤) : ('22.11월) 610 → ('22.12월) 650 → ('23.1월) 590 → ('23.2월) 790
  ❷ 부 탄($/톤) : ('22.11월) 610 → ('22.12월) 650 → ('23.1월) 605 → ('23.2월) 790

소매기준↘

- (국내가격) ❶ 프로판(원/kg): ('22.11월) 2,455 → ('22.12월) 2,450 → ('23.1월) 2,440 → ('23.2월) 2,405
  ❷ 부 탄(원/ℓ): ('22.11월) 1,032 → ('22.12월) 1,021 → ('23.1월) 1,020 → ('23.2월) 992

□ LPG는 그간 **도시가스 소외지역의 약 3백 4십만 세대 가정용 연료**와 **약 2백 만대의 LPG 자동차 연료**로서 사용되고 있으며, 최근 산업부문 등으로 **LPG 수요*가 다양화 추세**에 있는 등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.

* '21년 LPG 총수요, 10,380(천톤): 가정·상업용 15.5%, 수송용 24.7%, 석화산업용 46.8% 등

○ 유법민 국장은 "겨울철 LPG 난방수요 증가로 LPG 소비자들의 **난방비 부담**도 커지고 있는데, **최근 2월 국제 LPG가격이 상승***하여 **LPG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우려**가 더욱 커지고 있다." 고 하면서,

* '20년 LPG 총수요, 10,334(천톤): 가정·상업용 15.1%, 수송용 25.9%, 석화산업용 47.2% 등

○ "**LPG 수입·생산자 등 업계에서도**,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**국내 LPG 수급과 가격 안정화**를 위해 적극 노력" 해 줄 것을 LPG 수입사, 생산자(정유업계), 한국LPG산업협회·판매협회*,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등 **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**하였다.

* '23.1월 현재, 전국 LPG충전사업자 약 2,000사(社) , LPG 판매소 약 4,500사(社) 등

□ 한편, 정부는 지난 2.15일 「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」를 통해, 이번 동절기 LPG를 이용하는 **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**에 대해 **가스·지역난방 수준(59.2만원)으로 지원을 확대**한 바 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,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**"예산당국과 세부 지원 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**하고 있다고 하면서, **조속한 시일내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원**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"이라고 언급하면서,

○ "이번 추가 대책으로 **지원받는 LPG 수급 대상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** 지원받을 수 있도록 **모든 LPG 업계가 다같이 협심하여 적극 도와 줄 것**"을 요청하였다.

□ **LPG 업계**에서도, "동절기 난방비 **정부 지원정책에 적극 동참**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, **정부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력**해나가겠다"고 밝혔다.

○ 그리고, "최근 LPG 국제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요인이 있지만,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, **동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고통 분담 차원**에서 **LPG 가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**하겠다"고 언급하였다.

□ 정부는 향후에도 **LPG 가격점검**을 포함하여,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**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** 다각도로 관계부처, 지자체,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**노력을 다할 계획**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